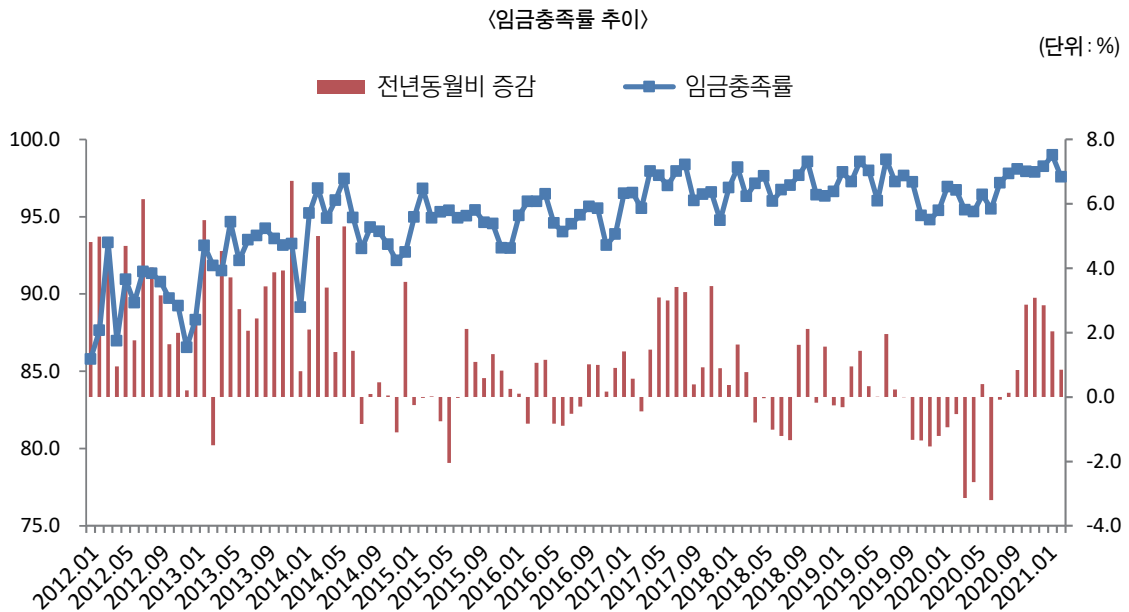


워크넷 구인구직DB를 이용한 2021년 3~4월 임금 동향

연보라 (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)

- 2021년 4월 신규 구인인원은 232천 명, 신규 구직건수는 426천 건, 평균 제시임금¹⁾은 208.4만 원, 평균 희망임금²⁾은 213.5만 원으로 전체 임금충족률은 97.6%로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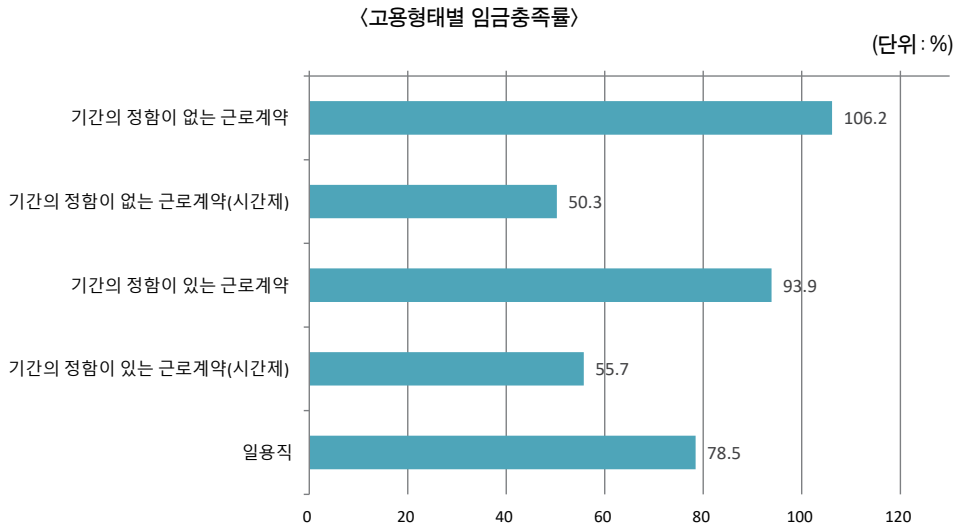
주 : 1) 임금충족률=(평균 제시임금/평균 희망임금)×100.

2) 임금에서 '분류불능'(응답자 오류) 및 특이값 제외함.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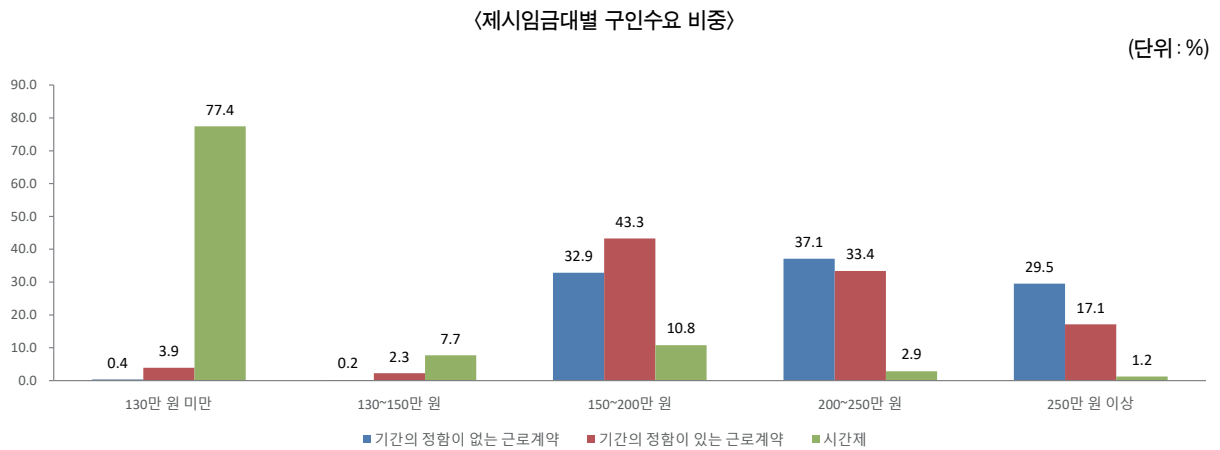
1) 구인업체가 구인서식에 기입한 취업조건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제시하는 임금.
2) 구직자가 구직서식에 기입한 취업조건으로 구직자가 구인업체에 요구하는 임금.

- 고용형태별 임금충족률은 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’ 상태에서 106.2%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, 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(시간제)’ 상태에서 가장 낮은 수치(50.3%)를 기록함. 시간제 근로형태의 낮은 임금충족률은 4월 시간제 근로형태에 대한 기업체의 낮은 제시임금에 기인함.



주 : 1) 임금충족률=(평균 제시임금/평균 희망임금)×100.
 2) 임금에서 '분류불능(응답자 오류)' 및 '특이값' 제외함.
 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

- 4월 고용형태별 제시임금대 비중을 보면, 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’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증가(+1.5%p)한 200~250만 원대 구인수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. ‘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’에서는 150~200만 원대 구인수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전년동월대비 1.1%p 감소하였음.
 - 대부분의 구인업체에서 시간제 고용형태에 대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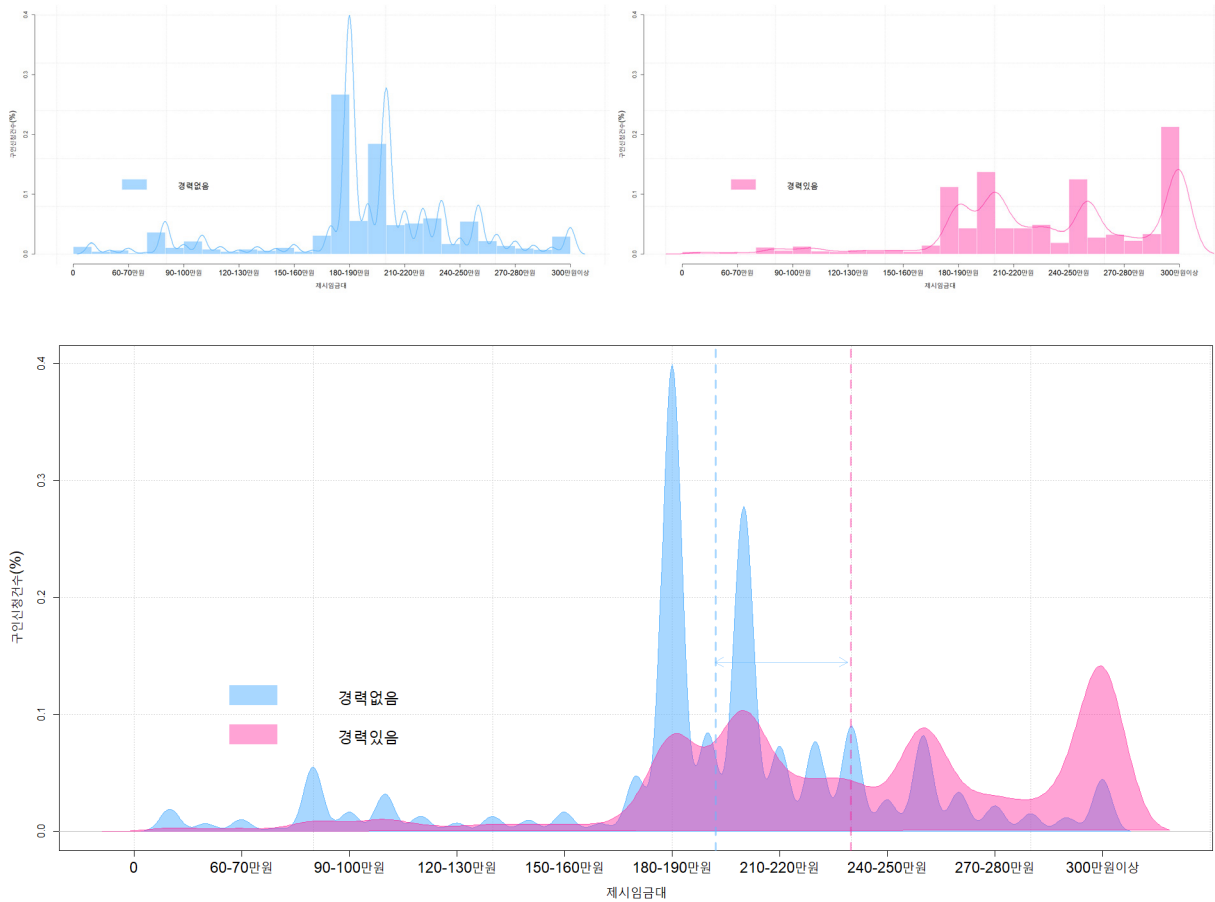


주 : 1) 임금대별 구인신청건수의 비중임.
 2) 제시 '월' 임금임.
 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

2021년 3월 기준 속성별 제시임금, 희망임금 분포 비교

- 임금대별 구인신청건수 비율을 통해 본 제시임금의 분포는 경력유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.
 - 신규직에 대해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은 주로 180~210만 원대에 집중된 반면, 경력직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상 구간을 포함한 좀 더 높은 임금 구간에 다수 분포함.
 - 그림에 실선으로 나타낸 분포 평균을 보면 신규직에 대한 제시임금 분포 평균은 190만 원대, 경력직에 대한 제시임금 분포 평균은 230만 원 이상에 위치함.

〈경력유무별 제시임금 분포〉



주 : 1) 2021년 3월 기준, 근로시간 및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임금 데이터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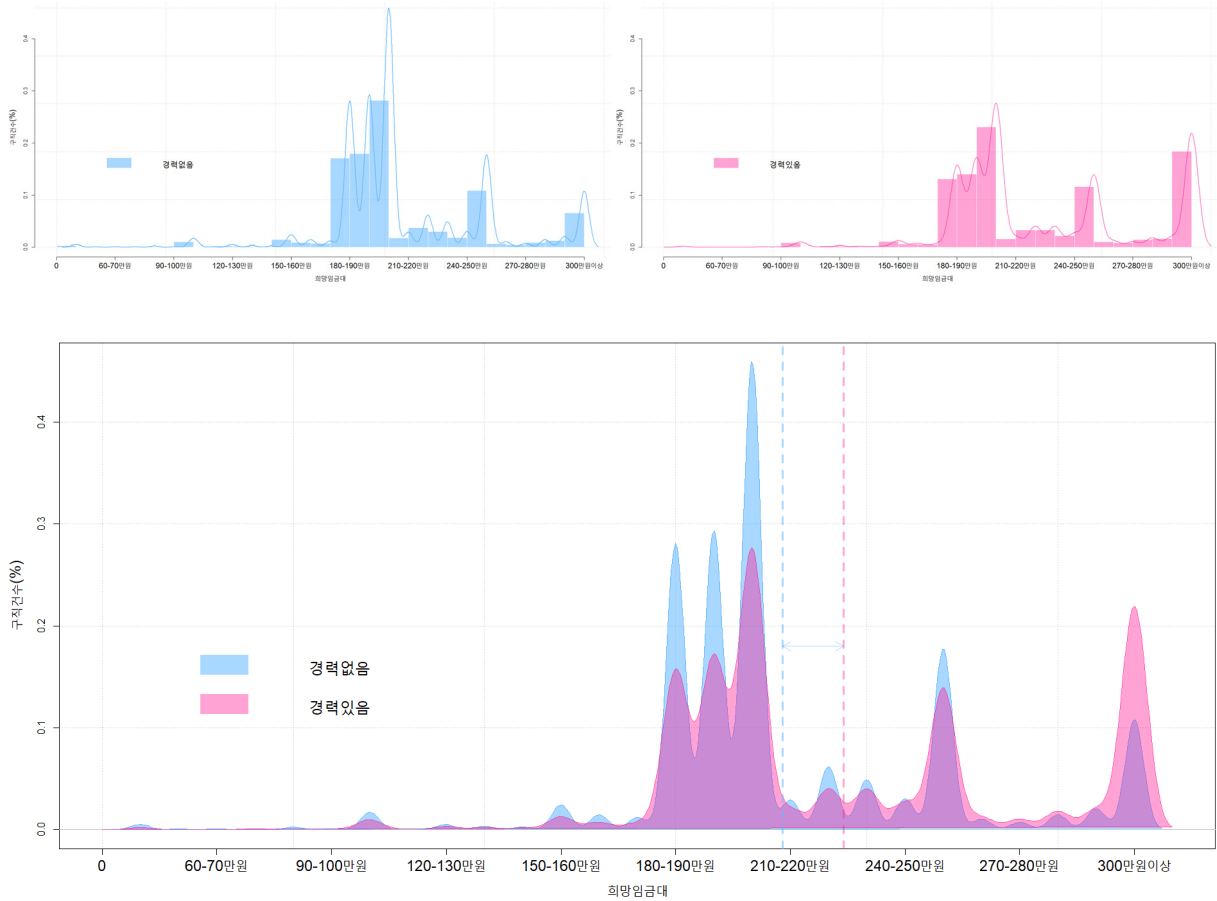
2) 제시 '월임금'이며, '분류불능'(응답자 오류) 및 특이값 제외함.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

■ 임금대별 구직건수 비율을 통해 본 희망임금 분포는 경력유무별로 차이가 나타난.

- 유경력자의 경우 200~210만 원대와 300만 원 이상 희망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가운데, 신규 구직자의 희망임금 분포 평균은 210만 원대, 경력직에 대한 희망임금 분포 평균은 230만 원대 수준임.

〈경력유무별 희망임금 분포〉



주 : 1) 2021년 3월 기준, 근로시간 및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임금 데이터임.

2) 희망 '월임금'이며, '분류불능'(응답자 오류) 및 특이값 제외함.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「워크넷 구인구직DB」.